

민 정 실	음 진 천
-------------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경전 사경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현명한 사람

깊은 믿음 가지고  
 이웃에 관심 기울이고,  
 매사에 있는 힘 다 하고  
 자기 조화 이룸으로서,  
 어떤 홍수에도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섬 이룩한다네.

By arising in faith and watchfulness, by self-possession and self-harmony, the wise man makes an island for his soul which many waters cannot overflow.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불기 2550 년 법전 종정예하 하안거 결제법문 발표

### "최후의 군센 관문 쳐부쉬라"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는 오는 12 일 불기 2550 년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수행납자들을 향해 결제법어를 내렸다. 종정예하는 ‘진정한 말후일구(末後一句)는 무엇인가’라는 법어에서 “최초의 일구를 안다면 최후의 일구도 알게 된다. 하지만 최후의 일구나 최초의 일구 모두 궁극적인 일구 즉 말 후구는 아니다”며 “덕산 삼부자가 주고받은 문제의 그 말 후구가 과연 무엇인지 결제 한철동안 잘 참구해 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불기 2550 년 하안거 결제법문 전문.

진정한 말후일구(末後一句)는 무엇인가  
- 2550 년 하안거 조계종 종정 도립법전 선사 결제법문 -

덕산스님이 어느 날 공양이 늦어지자 손수 발우를 들고서 법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공양주 소임을 살고 있던 설봉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종도 치지 않고 복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덕산스님은 머리를 푹 숙이고서 곧장 방장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설봉스님과 함께 살던 암두스님은 이 일을 전해 듣고서 또 한마디를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덕산이 말후구(末後句)도 모르는구나.”

그러자 덕산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암두스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노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암두스님은 은밀히 자신의 뜻을 덕산스님에게 열어 보였습니다.

이튿날 덕산스님은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데 그 전의 법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자 암두가 큰방 앞에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노장이 이제 겨우 말 후구를 알게 되었구나. 이 이후로는 천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다만 삼년뿐이로다.”

덕산탁발(德山托鉢) 공안에는 4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덕산선사가 제자 설봉스님의 말 한 마디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방장실로 되돌아간 부분입니다.

정말로 대답할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까?

둘째, 덕산선사가 과연 말 후구를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말 후구를 모르고서 어떻게 당대의 대선지식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 암두스님이 은밀히 자신의 견처를 내보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넷째, 덕산스님이 암두스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말 후구를 알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암두스님이 스승인 덕산스님보다 안목이 더 나았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 공안은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하거나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독약과 같아서 상신실명喪身失命하게 될 것이니 부질없는 알음알이로 소견을 달아 조사의 참뜻을 물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 분별인 유심有心경계는 고사하고 허통공적虛通空寂한 무심無心の 깊은 곳에서도 그 참뜻을 알아차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최후의 군센 관문을 쳐부שו고 확철히 크게 깨쳐야만 비로소 고인의 입각처立脚處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공안을 제대로 바로 알기만 한다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일체공안을 일시에 다 타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격장부가 되어 금강보검을 높이 들고서 천하를 중횡무진縱橫無盡하며 살활자재殺活自在할 것이니 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결제대중들이여!

산승의 견처로 점검해보니 최초의 일구를 안다면 최후의 일구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일구나 최초의 일구 모두 궁극적인 일구 즉 말 후구는 아닙니다. 이들 공안을 제방에서 흔히들 여러 가지로 논해왔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덕산 삼부자가 주고받은 문제의 그 말 후구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참으로 그 말 후구末後句인가 하는 것을 이번 하안거 결제 한철동안 잘 참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각월중계 斫却月中桂하니

청광전경다 淸光轉更多로다  
호리구병적 狐狸俱屏迹하고  
사자분금모 獅子奮金毛로다

달 속의 계수나무 베어내니  
밝은 빛이 더욱 많아짐이로다.  
여우와 살쥬이는 자취를 감추고  
사자는 황금털을 뽐내는구나

불기 2550 년(2006) 하안거 결제일에

.....  
**봉축위원장 지관스님, 봉축사 발표**

" 각성하는 인류 새출발 기원합니다 "

불기 2550 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오늘(4 월 28 일) 봉축사를 발표했다. 봉축위원장 지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각성하는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기원한다"며 "나의 탐욕 나의 분노 나의 어리석음을 너의 자비, 너의 슬픔, 너의 희생, 너의 지혜로 비추면서 끝없이 스스로의 어둠을 소멸해 가자" 고 밝혔다.

다음은 봉축사 전문.

불기 2550 년 조계종 총무원장 봉축사

"각성하는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 날 삼가 봉축 올리나이다.  
중중무진세계의 일체 중생들, 오늘은 여러분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석가세존은 모든 중생을 본래부처요, 미래의 부처님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기는 별레와 나는 새, 흘러가는 구름들도 모두 우리의 생일이라 자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의지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중생(衆生)이라는 은혜(恩惠)의 그물에 얽힌 유일(唯一)한 구슬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물(微物)도 단일한 물성(物性)으로 출생(出生)할 수 없으며, 크나 큰 은하수도 어울림으로서만이 오래토록 반짝일 수 있습니다.  
중생이 없는 곳을 찾아 티끌 그 속을 살펴보아도 중생이 아닌 그 속은 없으며, 무한(無限)으로 밖을 떠나 헤매어 보아도 중생 없는 그 밖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계중생(法界衆生)의 본지풍광(本地風光) 중에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의 경계(境界)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무정(無情)의 지구와 인류평화를 파괴하는 일도 탐욕과 분노, 무지함으로 얼룩진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활동(活動)이며, 전쟁과 불행을 막아 내는 일도 참회와 용서, 용기 있는 지혜로 무장한 생명(生命)들의 떳떳한 실상(實相)입니다.  
너의 탐욕과 나의 지혜를 본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너와 나, 우리들, 그 사이에서 삼독의 불길을 타오르며, 우정어린 너와 나, 우리들 그 틈새로 용서와 지혜의 꽃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나의 주장과 너의 무지, 나의 청렴과 너의 부도덕, 나의 선함과 너의 사악함, 나의 가난과 너의 부유함, 나의 근면과 너의 태만, 나의 아픔과 너의 행복, 나의 신앙과 너의 이단 등, 아만과 집착들은 빛나던 세계를 암흑으로 바꿉니다.  
검은 구슬과 때 묻은 거울들은 서로를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무한한 구슬들의 그물이 흩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기를 포기하였을 때, 삼독의 파고는 높아지고 중생들은 세상이 어둡고 불행하다고 슬퍼합니다.  
나의 탐욕, 나의 분노, 나의 어리석음을 너의 자비, 너의 슬픔, 너의 희생, 너의 지혜로 비추면서, 끝없이 스스로의 어둠을 소멸해 갑시다! 일체를 비워 영롱한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어 쉬어감이 없을 때, 세상은 무한히 빛나고 모두는 행복하다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수억 리 은하수 너머 행성의 생명들이, 지구촌이 왜 이리도 밝으나! 고 탄성을 지를때까지! 공격하고 정복할 줄 밖에 모르는 지구촌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불성(佛性)의 인류(人類)가 총칼없는 혁명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어린 연어떼들, 억조창생의 갯벌중생들과 동생동락하던 철새들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돌아가게 합시다.

총칼을 들고 원정을 떠나는 청년들이 불살생(不殺生)의 혁명대가 되어 평화(平和)의 지대(地帶)에서 노래하게 합시다.  
 눈물지으며 국경을 몰래 넘나드는 타국의 가난한 이웃들이 허리 펴고 웃을 수 있게 합시다.  
 인류의 행복은 그들의 그물 끝에 달려 있습니다.  
 생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인류의 별, 늘 푸른 지구촌을 위해 각성하는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50(2006)년 초파일(5월 5일)

-----  
**“석주스님은 불교복지 선구자”**

석주스님이 현대 한국불교복지의 선구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복지학과 교수 보각스님은 지난 1일 본지와 봉은사 공동주최로 봉은사에서 열린,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 석주스님’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포교활동과 사회복지에 끼친 석주스님의 업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승가대 복지학과 개설**

보각스님은 불교사회복지에 있어서 석주스님의 가장 큰 업적으로 사회복지학과 개설을 꼽았다. “중앙승가대 내 사회복지학과 설치에 복지사업 실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인재양성의 발판이 됐다”며 “2006년 현재 승가대는 576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했고 이 중 60여명의 스님들이 전국 불교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설립 또한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포교에 대한 석주스님의 원력을 계승한 승가대는 1992년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한 이후 최우수복지관으로 평가받으면서 불교계 복지시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며 “1995년에는 소쩍새 마을을 인수하고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을 설립해 현재 13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는 등 불교계 최고의 법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각스님은 또 노인복지에 대한 석주스님의 남다른 실천을 소개했다. 바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안양원’을 건립한 것이다.

**노인복지센터 ‘안양원’ 건립**

“평소 불자들에게 <부모은중경>을 보시해 효를 강조했던 석주스님은 노인복지사업을 자신의 평생사업의 최우선으로 여겼다”며 “미수의 나이에 복지관 건립을 추진, IMF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사를 완공하는 원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봉은사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또한 석주스님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석주스님이 조실로 주석하고 있을 당시 봉은사는 교계 최초로 강북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했고, 청소년복지기관인 역삼청소년센터도 수탁 받았다. 또 3곳의 어린이집을 비롯해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보각스님은 “봉은사의 보살행은 석주스님의 덕화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능인스님(중앙승가대 복지학과 교수)은 “특히 승가대 내 사회복지학과 개설은 시대를 앞서간 스님의 원력으로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논평했다.

**민족불교... 만해정신 계승**

한편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석주스님의 삶에 나타난 민족불교’에서 석주스님의 불교정신은 민족불교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스님이 조계종 정화운동에 참여해 종단재건에 남다른 헌신을 한 것은 만해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차이가 있다면 만해스님은 스님의 결혼을 옹호, 실천했지만, 석주스님은 대처승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은 총평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석주스님의 종단행정이나 포교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스님의 내부적인 살림살이에는 소홀한 측면이 강하다”며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스님의 불심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사 복원의 기초 작업”**

**용성. 한암스님 등 근·현대 고승 조명 활발**

근·현대 한국불교를 빛낸 고승들의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스님)가 지난 4월 23일 ‘한암선사의 선사상과 그 영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데 이어,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은 지난 4월 28일 ‘백용성스님과 한국불교출판의 역사적 조명’을 진행했다. 또 봉은사에서 지난 2일 석주스님의 업적을 기리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명사업이 활발하다. 최근 이런 흐름에 대해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근·현대 불교역사의 주역이었던 스님들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은



미흡하게나마 역사복원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해방을 전후로 선이나 출판, 포고·복지 등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던 스님들의 발자취를 쫓아보면 당시 시대상과 변천사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며 “해당 본사나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훌륭한 선지식이고, 불교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삶에서 보여준 바람직한 수행자의 상을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의 수행자들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비단 세 명의 스님뿐만 아니라 고승들의 삶을 반추하는 작업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부처님 만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500 명의 비구들과 더불어 유행하시다가 비사리성 북쪽에 있는 암라파알리(A-mrapa-11-) 동산에 이르셨다. 그 때 암라파알리라는 여인은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 설법을 청해듣고 감동하여 공양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청을 받아들이자 그녀는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왔던 길로 황급히 되돌아갔다.

그 때 비사리성에 살고 있던 500 명의 부가집 귀공자들도 부처님이 5 백 명의 비구들과 암라파알리 동산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청하기 위해 동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오색찬란한 수레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귀공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제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위용이 있었다.

귀공자들이 비사리성을 나와 세존이 계신 동산으로 가는 길에 도성으로 되돌아가는 암라파알리와 마주쳤다. 귀공자들은 그녀를 향해 왜 여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소를 때리며 다급하게 수레를 몰아 성안으로 달려가냐고 꾸짖었다. 이에 암라파알리는 내일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올릴 공양 준비를 위해 서둘러 돌아간다고 답했다. 이 소리를 들은 귀공자들은 자신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청하러 가는 길인데 당신이 선약을 했으니 순금 천냥을 받고 공양 올릴 기회를 자신들에게 양보하라고 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공양 올릴 마음으로 고무된 암라파알리는 이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귀공자들은 만약 공양 기회를 양보한다면 10 만 냥의 순금도 줄 수 있다며 거둬 양보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신심으로 환희에 차 있는 암라파알리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존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희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하나는 재물에 대한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목숨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꼭 살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여래를 청하였으니 지금 곧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겠습니다.”(중일아함경 19 권 권청품)라고 말했다.

귀공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황금으로도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우리들은 저 여인보다 못하다!”고 탄식하며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이튿날 암라파알리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소유였던 암라파알리 동산마저 부처님께 봉헌했다. 이것이 암라수원(菴羅樹園)인데 이곳은 유마거사의 고향과 가까워서 <유마경>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암라파알리는 당시 이름난 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녀의 신분에 개의치 않고 공양청을 흔쾌히 수락하셨다. 엄격한 신분질서 아래서 자신을 평등하게 대해준 부처님의 태도는 이 여인에게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내면의 긍지와 가치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부처님을 통해 자신이 받았던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할 위안을 얻었고, 시대적 담론에 의해 부정되었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얻었다. 이상의 내용은 우리들이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람에 대한 대우를 다르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문하게 한다. 부처님은 불법(佛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내일까지 살아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라는 암라파알리의 반문이다. 사람의 목숨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부처님 만나는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내일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다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부처님 뵈기를 내일로 미루고 있거나 않은지, 내일부터 좋은 일 하겠다고 선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추해 볼 일이다. 참다운 불법을 만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으며, 내일로 미루어서도 안된다. 바로 이 순간 신심과 환희에 찬 암라파알리의 마음으로 불법을 맞이할 일이다.

## 참선을 하면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Q:** 참선(參禪), 좌선(坐禪), 간화선(看話禪)은 다른 것인가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참선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참선.좌선은 ‘선수행’ 이르는 말, 간화선은 참선의 대표적인 형태

**A:** 참선과 좌선, 그리고 간화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선과 좌선, 간화선의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선은 ‘들어갈 참(參)’자와 ‘선(禪)’이 결합된 말로 ‘선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선수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좌선은 글자

그대로 앉아서 선에 들어간다, 즉 선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곧추 세운 상태에서 눈을 반쯤 뜨고 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좌선이 선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때문에 참선, 좌선, 선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체험과 직관에 의해 진행되는 참선의 ‘선’은 범어 드야나(dhya-na)를 한역한 ‘선나(禪那)’의 약어입니다. 선을 통해 얻어지는 공능(功能)이 한량없기에 ‘공덕총림(功德叢林)’이라 하기도 하고, 사유하여 닦아가므로 ‘사유수(思惟樹)’라 하며, 선을 닦아 마음이 적정하고 여실한 지혜가 드러나므로 ‘정려(靜慮)’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유수’라 한다고 해, 어떤 사태에 직면해 그것을 분석적으로 생각해 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모아 집중해 들어가며 닦는 것을 말하며, 고요하게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의 본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선정(禪定)’이라고 할 때의 ‘정(定)’은 범어 삼마디(samadhi)의 음역으로 마음이 고요하여 산란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때문에 참선은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수행법입니다. 이를 정혜쌍수라고 하죠. 정과 혜가 수행의 증득(證得) 측면을 가리킨다면, 닦는 방법(方法)인 ‘지(止)’와 ‘관(觀)’을 강조해 지관쌍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선하면 임제선종에 따른 간화선(看話禪)을 부르는 말로 통용됩니다. 화두(話頭)참구가 참선의 핵심적 방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참선의 대표적인 형태가 간화선(看話禪)입니다. 간화선 외에도 목조선 염불선 등이 있습니다만 한국불교에서 선은 간화선을 의미 합니다.

한국불교는 일본이나 티베트, 또는 동남아 불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입니다. 신라 헌덕왕 13년 도의선사가 남종선을 처음으로 전한 이래 우리나라에는 선이 정착해 면면히 계승 발전해 왔습니다. 선종, 즉 조사선.간화선의 전통을 가장 잘 지켜 온 곳이 한국입니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선사상과 ‘실참(實參) 실수(實修)’의 면에서 대단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수행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나를 찾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 시시각각 변하는 내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나, 깎아지른 듯한 백 척 장대 위에서 서슴없이 한 발 내딛는 나, 한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를 바로 이 자리에서 찾는 것이 선입니다. 찾는다고 표현하지만 ‘이미 내 속에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떤 사태에 직면해도 당황하지 않으며, 불안과 공포가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망상과 번뇌를 다스리며 현실에 즉(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삶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내면이 자유롭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집중력이 생기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심신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삶과 강한 정신력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간화선 수행이 바로 ‘최고의 웰빙’인 셈입니다.

---

## 美 복권 당첨자, 베트남 사찰에 40 만 달러 기부

“부처님 덕 입었으니 일부 회향”

8000 만분의 1 확률로 알려진 미국의 로또복권 파워볼(Power ball) 당첨자가 링컨주의 베트남 사찰에 40 만 달러(한화 4 억 상당)를 기부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 ‘브디스트채널’이 지난 4 월 28 일 전했다. 기부자는 지난 2 월 미국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파워볼 당첨자 중 하나인 쿠앙다오(Quang Dao)씨.

다오 씨는 최근 상금으로 받은 1500 만 달러 중 40 만 달러를 사찰 건립을 위한 베트남 공동체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 4 월 4 일에는 원활한 불교활동을 위해 링컨주의 민원업무부서에 6000 달러를 지원했다. 다오 씨는 링쿠앙 불교센터에서 활동하던 불자로, 링컨주의 한 요리공장에서 근무하는 가난한 종업원이다. 다오씨는 “링컨주의 베트남 불교공동체가 4 년 동안 사찰을 짓기 위해 절약을 생활화하고 저축하고 있는 것에 감동해 40 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불교공동체는 지난 2002 년에 새로운 사찰을 짓기 위해 미국 링컨주의 사우스웨스트 33 번 거리와 웨스트 플래전트 힐로드에 20 에이커의 땅을 구매했으며, 1000 여명의 불자들이 실행활동을 하고 있다.

---

- 불기 2550 년 부처님 오신 날 일년 연등 동참자 명단 및 일년 영가 연등 동참자 명단 -

지면 관계상 가족 대표만 적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일년 연등 동참자 명단 -

0. 세계평화 불사원만 성취; 0. 불국회 소원성취  
1. 흥법 문정모, 2. Seoul Garden Restaurant 강봉채, 3. 김현웅, 4. 대법행 남일현, 5 번 염옥희, 6 번 이찬혁,  
7 번 해운 정중현, 8 번 박영찬, 9 번 임현철, 10 번 김재수, 11 번 김수현, 12 번 박준현 13 번, 조남국, 14 번 김대성,

15 번 Mark Frank, 16 번 이봉호, 17 번 남성희, 18 번 보광 이진욱, 19 번 김대원, 20 번 근일 허정석, 21 번 John Ahn, 22 번 Jeffrey Clem, 23 번 최용석, 24 번 심경,수 25 번 대해 임종춘, 26 번 류웅렬, 27 번 양영일, 28 번 양유근, 29 번 노덕복, 30 번 한복희, 31 번 Jack Benton, 32 번 Lloyd Harvey, 33 번 손인석, 34 번 심용택, 35 번 흥대선, 36 번 청정행 정혜주, 37 번 현덕 홍준수, 38 번 천성훈, 39 번 정순범, 40 번 이문석, 41 번 박형근, 42 번 최석준, 43 번 정주영, 44 번 김종학, 45 번 문장우, 46 번 오성균, 47 번 강지환, 48 번 이수경, 50 번 김병일, 51 번 서혜숙, 52 번 김수호, 53 번 김수영, 54 번 김수진, 55 번 유인갑, 56 번 전순영, 57 번 유병호, 58 번 유병준, 59 번 권나연, 60 번 이성연, 61 번 오영순, 62 번 이근제, 63 번 이근혁, 64 번 박래경, 65 번 백련화 김호례, 66 번 박으뜸, 67 번 박꽃별, 68 번 박셋별, 69 번 보배심 김태순, 70 번 이은숙, 71 번 이동엽, 72 번 김창호, 73 번 박향덕, 74 번 김수정, 75 번 김준, 76 번 이윤재, 77 번 김효정, 78 번 김미사, 79 번 김미경, 80 번 김귀자, 81 번 김영희, 82 번 김태성, 83 번 수정화 이금주, 84 번 김준협, 85 번 권태형, 86 번 한만균, 87 번 Il-Kwon Kim, 88 번 정영균, 89 번 정다운, 90 번 정다빈, 91 번 길은주, 92 번 김기호, 93 번 목영욱, 94 번 선법장 윤선정, 95 번 목문석, 96 번 대승행 박인자, 97 번 김일태, 98 번 한정연, 99 번 한영택, 100 번 Brian Barry, 101 번 김덕양, 102 번 강수산, 103 번 소현 스님, 104 번 장진희 수녀님, 105 번 능공 신봉길, 106 번 Wilbur Gilmore, 107 번 길호균, 108 번 배재현, 109 번 백유상, 110 번 김인순, 111 번 정경현, 112 번 황현식, 113 번 박진봉, 114 번 이재상, 115 번 안순분, 116 번 이병국, 117 번 유행석, 118 번 문병현, 119 번 김지호, 120 번 청공 문철취, 121 번 서영호, 122 번 조대원, 123 번 이상필, 124 번 이재현, 125 번 정순범, 126 번 손영찬, 127 번 석주현, 128 번 이지연, 129 번 임남희, 130 번 박기섭, 131 번 황한섭, 132 번 Michael Lee Cottmeyer, 133 번 김형숙, 134 번 이창렬, 135 번 임지용, 136 번 홍시흥, 137 번 이광의, 138 번 김명용, 139 번 변성철, 140 번 염양구, 141 번 최두영, 142 번 박정규, 143 번 대한 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음성 공양팀, 144 번 박성호, 145 번 강금조, 146 번 박옥자, 147 번 이정자, 148 번 박성용, 149 번 용담 김태완, 150 번 청운심 이정상 (이상 연등 150 등)

- 일년 영가 연등 동참자 명단 -

1.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2. 망부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망모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망숙부 남평후인 문길한 영가  
숙모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행효자 흥법 문정모 복위)
  3. 망조모 차옥녀 영가, 망부 김해 후인 김원근 영가 (행효자 김헌웅 복위)
  4. 망조모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망모 진한미 영가 (행효녀 박수민복위)
  5. 망조부 전주후인 임 일 영가, 망조모 경주유인 최용숙 영가, 망모 황씨영가 (행효자 임현철 복위)
  6. 망조부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망조모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망부 상산 후인 김금진 영가  
(행효녀 김동희 복위)
  7. 망부 죽산후인 안창호 영가 (행효자 John Ahan 복위)
  8. 나주 정씨 영가 일체등
  9. 망자 전주후인 이상기 영가 (법화심 기부)
  10. 김해김씨 조상영가 일동 (행효자 김기호 복위)
  11. 목문균 영가
  12. 망 외삼촌 청주후인 한용근 영가 (행효녀 박인주 복위)
  - 13 번 망부 진주후인 강인형 영가, 망모 의령유인 남팔상 영가 (행효녀 강수산 복위)
  - 14 번 망 성산 길씨 일체 영가, 망부 성산후인 길형묵 영가, 망모 양천유인 허정애 영가 (행효자 길호균 복위)
  - 15 번 망 나주 정씨 일체 영가 (행효자 정강석 복위)
  - 16 번 망 탐진 후인 최치남 영가 (최문선 복위)
  - 17 번 망 밀양 박씨 선망 조상 영가 일체 (행효자 박래경 복위)
  - 18 번 망 조상 일체 영가 (황현식 복위)
  - 19 번 망 광산 김씨 조상 일체 영가 (행효녀 김인순 복위)
  - 20 번 망 경주 이씨 조상 영가 일체 (행효자 이상필 복위)
  - 21 번 망 조상 영가 일체등 (행효자 이재현 복위)
  - 22 번 망 고무래 정씨 조상 영가 일체등 (행효자 정순범 복위)
  - 23 번 망 밀양 손씨 조상 일체 영가등 (행효자 손영찬 복위)
  - 24 번 망 고흥 유씨 일체 영가등 (행효자 유행석 복위)
- (이상 일년 영가 연등 24 등)

## 법회소식 NEWS

- 불국사에 경사입니다. 그동안 바쁜 와중에서도 총무역할을 충실히 임해 주셨던 보광 이진욱 거사님께서 미주리 대학원에서 5월 13일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수민씨는 워싱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임명임 학생과 김현정 학생은 학부를 그리고 김선태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모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창건이래 불국사의 기둥이셨던 홍법 문정모 회장님께서 슬프게도 와병중이십니다. 신도님들은 회장님의 쾌차를 일심으로 기도들 해 주십시오.
- 올해는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지 불기 2550 번째 되는 해 임과 동시에 세인트루이스에 불국사 (Buddhanara Temple)가 창건된지 만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행사는 올해로 5번째 불국사에서 가졌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부처님 오신 날 일년 연등 불사는 세계 각지에 계신 불국사를 후원하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도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분들이 동참하는 연등 불사는 미국 중부 지역인 세인트루이스에 불국사가 뿌리를 내리고 포교의 밑거름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일년 연등 동참 150 등과 일년 영가 연등 동참 24 등으로 총 합계 174 개의 등을 법당에 올렸습니다. 174 개의 일년 등은 앞으로 일년동안 불국사 법당을 장엄해서 사찰을 찾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환희심과 연등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 입니다.
- 올해 2550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 불국사에서 법요식 및 관불의식 그리고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축하공연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법회 참석차 오신 소현 스님과 강 수산 한의원 원장님도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날 법당을 장엄하는 꽃꽂이를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김동희 보살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신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상단, 신장님이 계신 중단 꽃꽂이, 그리고 법당 곳곳은 물론이고 사찰 도량까지도 꽃으로 장엄해 주셔서 신도님들이 환희심과 기쁨마음으로 법회와 기도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오신날 축하공연은 토요일 참선 법회에 오셔서 참선 정진하시는 Mr. Bill Murphy,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 생일 케익은 보광 거사님 과 Mr. Mark Frank 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공양준비는 신도님들이 일치단결해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즐거운 공양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편찮은 와중이지만 홍법 문정모 회장님과 보광 이진욱 총무님을 중심으로 신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 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여법하고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불국사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불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 제가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명이 없으신 신도님들 중에서 불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이수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계를 받으실 신도님들은 사찰로 연락 주십시오.
- 6월에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점심공양이 있습니다. 날짜는 나중에 공지 하겠습니다.

- 4월 신규 인등기도 동참자: 193 번 장홍호, 194 번 이해영, 195 번 장석원, 196 번 장현식, 336 번 정재한, 337 번 이해경, 338 번 정진영, 339 번 정민영, 340 번 이재상, 341 번 이경임, 342 번 이효행, 343 번 이효행, 344 번 이효진, 345 번 이흥기, 346 번 이봉기, 347 번 윤소영, 348 번 김홍옥, 349 번 김경철, 350 번 김한미.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